

## 4장.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경고

3:1-4:4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간곡히 청하는 내용이었다. 4:5-6:30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두렵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1. 회개의 촉구 (4:1-4)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요동치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여호와를 인하여 복을 받고 여호와를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그들은 묵은 땅을 갈아서 잡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이 기경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다. 그들이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분노를 발하여 그들을 불같이 사르실 것이다(4:4).

### 2. 북방의 나라를 통한 심판의 경고와 예언자의 탄식 (4:5-10)

북방에서부터 사자와 같은 나라가 공격하러 오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그 사실을 알리고 경고한 성인 예루살렘으로 피하라고 하였다. 반복되는 명령형을 사용하여 사태의 긴박성을 강조한다. 적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시온에 깃발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피하게 하라고 하였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원수들은 사자처럼 그들을 공격하여 그곳을 모두 황폐케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공격이 ‘여호와와 맹렬한 노’로 인한 것임을 밝힌다(4:8. 참조 4:4). 따라서 아무도 북방의 나라를 통한 그분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없다. 그날에 왕과 방백은 실신할 것이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4:9. 참조 2:8).

심판의 소식을 전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을 발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북쪽의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속이는 일이라고 항변하였다. 10절의 이 구절은 쉽지 않다. 그래서 화자를 예레미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일도 있다(70인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자를 바꾸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평안을 선언하는 것을 허용하신 사실을 두고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이 구절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구절에 관한 어려움은 심판의 말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심정이 매우 복잡한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구절은 쉽게 해석해 보려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3. 북방 군대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악 (4:11-18)

북방의 군대가 공격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였다. 그들의 병거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같아서 회리바람처럼 신속하고 강렬하게 유다를 공격하였다. 그 바람은 키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었다.

엄청난 공격 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4:14) 하는 초청의 말씀도 듣는다.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는 말로써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상태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물살 틈이 없이 에워쌀 것이다. 북쪽 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북방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공격해 내려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 4. 예언자의 탄식 (4:19-22)

제앙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는 자기의 심장이 급격히 요동하고 마음의 벽들이 무너진 상태에 떨어진다. 그는 패망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의 장막이 무너지고 찢기는 것을 경험한다. 백성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기고서 그 고통을 표현한다.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4:22)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나(신 4:6) 그들은 여호와를 버려 우둔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참조. 신 32:28-29).

#### 5. 혼돈과 공허의 세계로 바뀜 (4:23-28)

23-26절은 모두 ‘내가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과 같은 상태였다(참조. 창 1:2).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처럼, 북쪽 나라의 침략을 받은 그들은 창조 이전의 상황처럼 되었다(참조. 사 34:11). 그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나’ 지금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황폐한 그 나라를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4:27). 땅이 슬퍼하고 하늘에 흑암이 있으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고 시행하실 것이다.

#### 6. 끝까지 간음하는 이스라엘 (4:29-31)

기병과 활 쏘는 자가 침략하자 사람들은 성읍에서 도망하여 수풀로 숨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린다. 다른 민족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기다리던 연인은 그의 원수며 정복자였다. 그의 기대는 고통과 비탄으로 끝나며 그는 멸시를 당할 것이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죽을 것이다(4:29-31).

#### 묵상과 실천: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음 (4:2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4:23)는 말로 표현한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서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데로 돌리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폐케 하시거나 멸망시키시지는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 대하여 구조를 갖추고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두심으로써 하실 것이다. 회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재창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듯이, 재창조의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로 되는 것이다.

#### 4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디에 할례 반기를 원하셨습니까? (4절)
2. 1)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심판하러 오는 북방의 군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지 찾아서 써 보십시오.  
(7, 11, 12, 13절)  
2) 그들의 병거와 그 말들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13절)
3.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심판이 이르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14절)
4.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9절)
5. 재앙의 소식을 들은 예언자는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고 말합니까? (22절)
6. 예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1) 땅과 하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산과 성읍은 어떠하였습니까? (23, 24절 26절)  
2) 이스라엘에 임박한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31절)